

## ■ 2009 스포츠 '희망을 쓴다'

&lt;3&gt; 광주체고 체조 박은경

**"런던 올림픽선 꼭 금 딸게요"**

"2009년 체조 요정의 세계 무대 도전이 시작된다."

광주체고의 박은경(18)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체조선수권 대회 여자 개인종목별 평균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줬다. 여자체조 사상 국제대회에서 22년 만에 나온 값진 금메달이었다.

앞선 10월에는 전남 전국체육대회 체조 여고부 단체전과 개인종합에 이어 도마·이단평행봉·마루에서 금메달을 쏘슬이며 전국체전 5관왕의 위엄을 달성하기도 했다. 도쿄인 광주체고의 전국체전 여자체조 단체전 5연패도 함께 이루어냈다.

자신의 주종목인 평균대에서 차지에 실패해 전국체전 전관왕(6관왕)을 놓치기는 했지만 박은경은 "베이징 올림픽 선발에서 탈락한 아픔을 씻었다."라며 더 큰 무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은경에게 베이징 올림픽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체육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던 박은경은 훈련도중 허리를 다치며 대표팀에서 하차하기도 했지만 힘든 재활 과정을 밟고 2005년 소년체전 금메달, 2006년 소년체전 3관왕에 오르며 재기에 성공했다. 지난해 광주 전국체전에서도 4관왕(단체, 개인종합, 도마, 이단평행봉)에 오르며 베이징행을 준비했지만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리듬체조의 신수지가 '체조요정'으로 금부상할 때, 기계체조의 요정 박은경은 4년 후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랠 뿐이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서연희와 서선영이 각각 이단 평행봉과 평균대에서 금메달리스트로 등극 한 뒤 우리나라 체조계는 금메달과의 인연을 맺지 못했었다. 베이징 올림픽 대신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무대에 오른 박은경은 한국최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일본 선수를 누르고 22년 만에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대표 탈락 아픔 딛고 체전 5관왕·亞대회 우승

## "정신력·독립심·예술성 키워 세계 무대 우뚝 서겠다"

아시아 무대에 우뚝 선 박은경은 기죽 년 세계 무대를 위해 한 단계 발전을 준비한다. 박은경은 키워낸 광주체고의 대부 최규동 체고감독은을 한해 '정신력·독립심·예술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고학년이 될수록 더디어 질 수밖에 없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 감독은 강한 정신력을 주문했다. 본인 스스로 취약점을 알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독립심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약점으로 지적되는 예술성을 키우기 위해 박은경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게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5월 전국체고체육대회, 8월 문화관광부 장관기 체조대회에 출전하는 박은경은 10월 대전으로 가 전국체전 영광 재연을 위해 도약하게 된다.

10월에 예정된 세계 종별 선수권대회도 박은경의 세계무대 진출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시장대에 오르는 꿈을 향해 박은경은 기축년 한해에도 묵묵히 도전의 길을 걷게 된다.〈끝〉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 단식 8강전에서 삼성생명 유승민이 중원고 서현덕을 만나 강력한 드라이브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앤서니 김, 말레이오픈 출전

미국프로골프(KPGA) 투어의 영건 앤서니 김(24)이 2월12일 개막하는 아시아골프 투어 메이뱅크 말레이시아오픈에 처음 출전한다.

유럽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리는 초특급대회 두바이월드챔피언십으로 가는 포인트가 걸려 있다.

유럽투어 멤버이기도 한 앤서니는 "말레이시아 대회는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출전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지만 좋은 경기를 펼쳐겠다"며 참가 소감을 대회조직위원회에 전했다.

## 비제이 싱 무릎수술...5주 결장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상금랭킹 1위에 올랐던 비제이 싱(파자)이 2009 시즌 개막전인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대회를 마치고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8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세계 랭킹 5위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시리즈인 페덱스컵 1위를 차지했던 싱은 무릎수술을 받은 뒤 약 5주간 결장이 예상된다.

9일부터 미국 하와이 카팔루아에서 시작되는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싱은 7일 연습 라운드를 마친 뒤 PGA 투어 측에 다음 주 역시 하와이에서 열리는 소니 오픈에는 나가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싱은 무릎 반월판 부위를 다쳐 수술을 받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 원주 동부 '팬 아이디어' 공모

프로농구 원주 동부가 팬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기 위해 2009 동부프로미 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중 증대 방안, 이벤트, 음악과 영상 3개 부문에 걸쳐 시행되며 대상 1명에게 2009-2010 시즌 홈 경기 시즌 관람권을 포함한 50만원 상당의 경품이 주어진다.

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20일 까지다. 대상 1명과 금상 3명, 은상 5명, 가작 15명의 수상자 발표는 23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석하정·고소미組, 女 복식 2연패

박미영·진달래조 꺾어...남자부선 오상은·김정훈組 우승

## 종합탁구선수권대회

대한항공의 '환상 콤비' 석하정과 고소미가 제62회 종합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복식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유승민은 남자단식 8강에서 서현덕(부천 종원고)을 4-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강동훈(KT&G)과 결승길목에서 맞붙었다.

대표팀 '맏형' 오상은(KT&G)도 8강 상대였던 이진권을 4-1로 제압해 '수비 달인' 주세혁(이상 삼성생명)과 4강 대결을 펼친다.

또 여자부 복식 결승에서는 오상은·김정훈(이상 KT&G) 조가 지난 대회 챔피언인 최현

진-유창재(이상 대우증권) 조를 3-0으로 완파하고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단식에서는 남녀부 디펜딩 챔피언 유승민(삼성생명)과 당에서 대한항공)가 대회 2연패 목표를 향해 순항했다.

유승민은 남자단식 8강에서 서현덕(부천 종원고)을 4-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강동훈(KT&G)과 결승길목에서 맞붙었다.

대표팀 '맏형' 오상은(KT&G)도 8강 상대였던 이진권을 4-1로 제압해 '수비 달인' 주세혁(이상 삼성생명)과 4강 대결을 펼친다.

또 여자부 에이스 당시에 역시 같은 대한항공의 김경아를 4-0으로 일축, 문현정(삼성생명)과 단식 결승행 티켓을 다투는다. /연합뉴스

## 오늘 목포서 전남 '배구인의 밤'

전남도 배구협회가 9일 낮 12시 목포에서 2009년도 '배구인의 밤'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13개 학교 배구선수 중 생활보호대상자 1명씩을 선정해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9일(금)

▲PGA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1R  
(08 : 00-SBS골프·SBS스포츠)  
▲전국남녀종합탁구 선수권대회(14 :

10-KBS1) 남자단체 준결승(15 : 50-KBSN SPORTS)

▲프로농구 KCC : SK(19 : 00-MBC-SPN·Xports), KT&amp;G : 모비스(18 : 50)

##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1140-5210 월 011-602-2532  
(주)한국신본집업, 대인동 소방서리나리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금보부동산컨설팅

☎ (02) 8949 월 011-602-2233

(산수동 543-51(우암타운입구 삼거리))

## 싼땅매매

▶부동산 35㎡ 250만원 대 140㎡ 70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0억 4,000만원

▶부동산 35㎡ 150만원 대 194㎡ 450만원 매매가 1